

04.인본주의 1

요한복음 6장 53절~57절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살피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율법주의 뿌리에 있는 거짓 신앙체계의 축인 기복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짓 신앙의 또 한 축인 인본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책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거짓 신앙의 체계는 삼위일체처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 둘째는 기복신앙, 셋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오늘은 거짓 신앙체계의 세 번째 부분인 인본주의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신앙에 대한 거짓된 이해, 그릇된 이해입니다.

인본주의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인본주의를 선명히 이해합니다.

첫째는 인본주의는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혹은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본주의는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본주의는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자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이 신앙에 대한 그릇된 이해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아멘.

인본주의는 자기 자원, 자기 목적, 자기 방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특징인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자원으로 신앙 생활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본주의는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신앙에 대한 그릇된 이해입니다.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성찬식을 할 때 읽었듯이 십자가의 복음과 관련된 중요한 진리를 다루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순간 순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삼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의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57절에 보시

면 십자가에 의한 삶, 십자가에 복음에 선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삶의 주요 특징이 뭐냐? 주요 특징이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십자가에 의한 삶 즉,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한 삶이 무엇이고, 예수님으로 인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여기 하나님으로 사셨다 그 말은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산다는 것은 혹은 옳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의 자원으로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사셨다고 말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자신의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만을 의지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전체를 보면 너무 너무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를 나는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는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듣는 대로 판단하며, 본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이 옳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사람에게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는 것으로 판단한다 에서 듣는 것은 무엇을 말 하나면? 하나님의 판단을 듣는 것으로만 판단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은 옳다. 왜냐하면 이 판단은 내 판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은 내 생각과 내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판단이기 때문에 옳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혜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사셨습니다. 자기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듣는 것은 사람에게 듣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자원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 이사야서 11장에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11:2-4 "여호와와 그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여기 보시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구절인데, 칠중 성령,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셔서 운행하시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치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교

제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할 것이고 그 판단이 옳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11장에 예언된 그대로 그렇게 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그것에 빠릅니다.

어떤 사람만 판단하더라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 사람 저것 밖에 안 돼!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속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우리는 온갖 판단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듣는 그 귀로 듣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기초해서, 우리가 배운 지식에 기초해서, 그 정보를 모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원이 우리의 자원으로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판단을 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옳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판단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의지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의지하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뿐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기 보세요.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5장 17절에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영어 성경에는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는 자기의 삶의 의지하는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만 의지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간단히 말씀 드린 대로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던 구절이 한 구절 있었어요. 여러 구절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느냐면?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기를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너는 나를 왜 선하다 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선한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이해되지 않았다는 말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자기의 선함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애기와 똑같거든요. 똑같습니다. 결론은.

그런데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와 하나'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구절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실제로 기억나기는 그 당시에 제가 몇 가지 주석들을 찾아 봤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에 학자들도 뚜렷하기에 답변을 아 그렇다고 속 시원하게 이해될 만한 답변을 제시하는 분은 별로 없었던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본주의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이해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나면? 예수님은 자신의 선함을 위해서도 자신의 선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선함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으되 죄는 하나도 없으시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님이 자신의 선함을 위해서 자기의 선,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만을 의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사셨습니다. 이게 옳은 신앙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의한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의한 삶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그 사람, 나를 먹는 그 사람,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도 철저히 예수님의 자원으로만 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처럼 예수님의 자원으로만 사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삶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나고요. 구체적으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되 우리의 지혜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심지어 우리의 선함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선함만 의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신 정확하게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믿는 모든 자를 위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뿐이요, 우리가 의지하는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뿐이요, 우리가 의지하는 의로움과 거룩함은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 뿐이요, 우리가 의지하는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뿐인 이것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요 이것이 십자가에 의한 삶이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발견했던 삶입니다. 그가 바울이건 허드슨 테일러건, 조나단 에드워드건 요한 웨슬레건, 그들이 정확하게 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되 자기에 행실로 인한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 의지하여 주 앞에 섰던, 그래서 예수님만이 자기의 의로움 되시며, 예수님만이 자기의 거룩함 되시며, 구속함 되시는 그 삶, 그 삶이 십자가에 의한 삶,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은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겁니다.

둘째, 자기 자원원에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둘째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것이 타락의 근본입니다.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것이 타락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해하고요, 여러분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것이 타락의 근본입니다. 인류타락의 시작은 루시퍼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루시퍼의 타락의 핵심이 뭐였느냐? 자기 자원으로 살고자 하는 ‘인본주의’ 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 14장을 루시퍼에 관한 루시퍼의 타락, 사단의 타락 그러니까 타락해 사단이 되었죠. 그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1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

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15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렁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기 보십시오. Original Sin! 가장 초대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원천적인 죄는 '교만'입니다. 영화 제목에 Original Sin 이렇게 나오면 성적 범죄 이렇게 이해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Original Sin은 교만입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원천적인 죄는 교만입니다.

근데 그 교만은 교만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단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밑바탕이 뭐냐?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원으로 사는 인본주의가 교만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요, 그것이 가장 원초적인 죄악입니다. 바로 사단이 그것 때문에 타락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타락한 다음에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했으나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으나 완전히 음부에까지 쫓히게 되는 하나님께 내어 침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뭐하느냐? 하나님의 Masterpiece인, 걸작인 인간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브에게 접근해서 넘어뜨렸는데, 접근할 때 사용한 게 뭐였느냐? 하나님처럼 되라고 한겁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지 말고, 네 자원으로 살라는 거죠. '네가 네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네가 네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타락의 핵심에는 자기 자원으로 사는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원초적인 죄악입니다. 그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겁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오실 예수님의,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저희가 각기 죄의 길로 향하여**' 각기 죄의 길로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시면,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타락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는 겁니다.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결국 사단을 따르는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사단에게서 나온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셔야 합니다.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것이 타락의 근본입니다.

가장 원천적인 죄가 교만인데, 그 교만의 전형적인 특징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건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식, 자기 자원, 자기 능력, 자기 목표, 자기 목적, 자기 방법을 따라 사는 인본주의입니다

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거짓신앙체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적 의식 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적 헌신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셋째,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의 열매.

이렇게 자기 자원으로 살면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고 있는지, 내 자원으로 살고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대로 이 열매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이 열매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 그러면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의 열매가 뭐냐? 첫째는 자족감입니다. 혹은 자만심. 자기 자원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족감 내지 자만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아교회 보셨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계3:17)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실상은 너희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그 사실도 모른다.'

안일함! 자족감! 자만심! 이게 교만의 극치인 것 같습니다.

왜 그 배후에는 자기를 의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아지역은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성도들은 부자였습니다. 부자다 보니까 살만큼 살지요. 그래서 현금도 충분히 했을 것이고, 우리가 충분히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건물도 예쁘게 지었을 것이고, 많은 프로그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했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신앙의 본질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교회. 왜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신앙의 본질을 알면 절대로 자족감이 들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보셨어요. 삼층 천에 다녀왔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당시 전 로마제국에 복음이 증거 되었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함께 하시는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 당시 에베소교회, 고린도교회 이런 교회들의 성도들이 3만, 5만 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5만 명이 모인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많이 주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갈급함 가운데 주님을 알기 위하여 갈망하잖아요.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여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서 있으면 절대로 자족감이 없게 돼있어요. 그런데 왜 자족감이 있는가?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족감, 안일함이 있다는 그자체가 뭐냐? 거짓신앙체계에 빠져있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짓신앙체계, 신앙에 대한 그릇된 이해 가운데에 빠져있으니까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잘나갔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안목에서 성한 게 하나있나 보세요. 칭찬 한마디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먼저 칭찬하시고 나중에 꾸중하셨거든요. 그런데 칭찬이 없이 꾸중만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목에서 그들의 상태는 벌거벗고, 굶주리고, 헐벗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까지 멀었어요. 영적인 눈까지 멀었기 때문에 자의 상태도 보지 못하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은 문 밖에 계세요.

안일함, 그게 자기 자원으로 사는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안일함이 있으면요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빠져있어요.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의 경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자족감, 자만심, 자신감, 자기 과시 이것들은 다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다 자기자원의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안일함이 여러분 죄인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모스 6장 1절, 스가랴 1장 15절, 이사야 32장 9절 등 라오디게아교회 외에라도 이런 구절을 보시면 안일함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안일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보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일함이 죄냐? 안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데서 나온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거짓신앙체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결과이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있는 증거이니까요.

자기자원으로 사는 또 하나의 열매는 기도 안하는 겁니다. 기도 안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경험을 보면 잘 알겠더라고요.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을 보십시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한지라 흑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 중에 읽어보시면 12절 "우리 하나님이며 저희를 정벌하지 아니하시나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 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구절을 이부분만 보면 이해가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몇 장 앞을 읽어보셔야 되요. 역대하17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에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 성에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효가 그 족속대로 이려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삼십만을 거느렸고 그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이십만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이십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예비한 자 십팔만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섬기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대하17:12-19)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군사만 해도 얼마나 됩니까? 삼십만, 오십팔만, 칠십팔만, 구십팔만, 거기다 십팔만을 더하면 백십육만.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육십만입니다. 이들은 싸우기를 예비 된 자 큰 장수들만 백십팔만, 큰 성, 그다음에 이 백십팔만 외에 온 유다 견고한 성에 왕이 군사를 두었는데요. 그러면 군사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호사밧이 20장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엄살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기뻐하셨는지,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 여호사밧은 자기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았습시다.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성경에 보면 잘하는 게 있는데, 두드러지게 잘하는 게 뭐냐 하면 문기를 잘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기가 블레셋지역에 들어가 있을 때, 사울에게 쫓겨나서 다른 블레셋 군대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지요. 그곳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를 받아 준 블레셋 족장은 다윗을 인정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센 사람이었는데 만약 전쟁하는 중에 배반해서 우리를 치면 양쪽으로 당할거 아니냐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다윗과 무리들이 집에 돌아오는데 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다른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아내들 자식들 가족들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당장에라도 일어나서 쫓아가야죠. 근데 거기에 보시면 다윗은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같까요? 말까요? 이라고 있으니까요 부하들이 그것을 보다가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이.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갈까요? 말까요? 묻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만을 의지했어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고 만나게 할 거라고 이기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가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 같으면 싸우면 저들을 멸할 수 있을 텐데 여호사밧은 자기의 자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했기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인본주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자원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안일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살만큼 사니까요. 자기 자원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 경험, 지식, 배경, 세상의 힘, 지위, 지식, 친척, 동료, 가진 것... 그러니까 안일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큰 교회 큰 예배당 작은 교회 그 수많은 교회가 있을지는 몰라도 성도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견여있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거룩함도 없고 진정한 의도 없고 세상 사람과 영적인 타락은 우리 가운데 너무 너무 팽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거짓신앙체계 가운데 빠져있으니까요.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은 이처럼 교만, 그 교만이 바로 자족감, 자만심, 자기신뢰, 자기과시로 나타나죠. 안일함, 갈급함이 없음, 기도 안함 이런 열매들로 나타납니다. 네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도록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목적 중의 하나가 뭐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필이면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왜 하필이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교만이 뭐라고요?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 전형적인 형태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우리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 이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앗혀 놓으시고 성경말씀을 펴놓고 저들이 성경말씀을 잘 먹고 마심으로 저들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

은 그 뜻이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였는가? 광야는 자기 자원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 마실 것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완전히 고갈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것이 철저히 불가능한 곳입니다. 왜 그리로 인도하셨는가? 자기 자원이 고갈된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도록 인도하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 하나 마시기 위해서도 먹기 위해서도 쓴 물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원수를 만났을 때에도 그들이 사는 한(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시와 지도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그들의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만나를 주실 때에도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못 먹었기 때문에 뭐 3일치씩 4일치씩 거뒀겠죠.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다 구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징그러워졌습니다. 내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 전날에는 두 배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만나가 내렸고 왜 이슬이 굳어서 만나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당연히 만나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 거뒀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날 하루 종일 굶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살았습니다. 그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로 보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야는 사람의 자원이 고갈된 곳으로서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살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왜 인도하셨는가? 그 삶을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도 그들은 거짓된 잘못된 습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되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억하실 것은 그 삶을 통해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가 여러분의 자원으로가 아니라 저의 자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려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처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흩어졌고 나중에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보다 훨씬 나아서 가나안을 차지했으나 그들 자손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는 인본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한 특징인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메시지가 약간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닌 것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자기 자원으로 사는,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이 삶이 너무 너무 팽배합니다.

예수 믿은 30년, 40년, 50년 된 분들 가운데도 팽배하고, 교회에서 리더들 가운데서 팽배합니다. 근데 이것은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신앙에 대한 그릇된 이해입니다. 더 심각하게 이것은 사단에게서 나온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참다운 신앙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으로 전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 되시며, 거룩함 되시며, 구속함 되시며, 능력과 지혜 되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기 위해 부단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알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본주의의 또 다른 특징인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과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삶, 신

양생활 하면서도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무겁습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거짓된 신앙이 너무나 팽배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다 위로를 받아야 뭔가 새로운 동기가 생길 텐데 꾸중을 받는 것 같으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지자들의 말로 저들을 치고, 저들을 죽였다”고 그랬는데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길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궁극적으로 살리기 위함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에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서 모든 거짓 신앙체계인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파괴되고, 하나님을 알고, 전존재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며, 마음껏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이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온 가정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이 온 열방 가운데 퍼져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